

#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181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15)체오름·거친오름  
분화구에서 음악회를 꿈꾸다

입력 : 2004. 01.30. 14:26:47



△체오름

체오름은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와 덕천리 경계에 걸쳐져 있다. 탐사는 2003년 12월 14일에 이어 올해 1월 18일 2회에 걸쳐 진행됐다. 처음에는 굴부리가 터진 반대쪽으로 정상에 올랐다. 오름 남서쪽의 거친오름을 뒤로한 채 정상에 오

르는 능선은 무성한 억새숲이 장관이다. 하지만 경사가 심해 정상에 오르기가 쉽지 않다.

체오름의 어원은 오름의 모양새에서 유래됐다. 곡식을 까불러 고르는 기구인 '키', 혹은 '체'를 닮았기 때문이다. 제주어로 골체(삼태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골체오름으로도 불린다. 이두식으로는 체악(體岳)으로도 표기된다.

정상에 오르면 거의 수직에 가까운 굴부리와 경사진 사면이 탐방객들을 압도한다. 거기에도 확 트인 조망과 주변에 무리지어 있는 오름들은 체오름 정상에서 맛볼 수 있는 색다른 체험이다. 굴부리가 벌어진 사이로 다랑쉬, 돌오름, 둔지오름이 한눈에 들어오고 남동쪽으로는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슨새미, 민오름, 비치미, 개오름이 줄지어 서 있다.

정상 등성이를 따라 돌면서 오름의 형체와 식물자원을 조사했다. 북동방향으로 열린 굴부리는 양쪽 등성이가 길게 뻗어내려 영낙없이 골체를 닮았다. 굴부리 사면에는 온대와 난대 수종이 자생하고 있다. 키가 큰 것으로는 구실잣밤나무와 녹나무, 참식나무도 보이고 희귀수종인 식나무도 균락을 이루고 있다. 화구 입구에는 동백나무가 조경용으로 넓게 조림돼 있다.

오름 정상에서는 체오름의 진면목을 모두 헤아릴 수 없다. 탐사단은 올해 1월 18일 체오름을 다시 찾았다. 굴부리가 벌려 있는 모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코스를 택했다. 송당마을을 따라 체오름 굴부리 쪽으로 향했다. 탐사단은 굴부리에서 2백여m 떨어진 곳에서 신당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라울당'이라 불리는 곳이다.

체오름은 굴부리의 북동방향에서 형태를 뚜렷이 관찰할 수 있다. '오름나그네' 김종철 선생은 체오름 굴부리를 가리켜 '시커먼 아가리를 벌린 거대한 괴물을 보는 듯한 괴기스런 느낌'이라고 했다. 굴부리안에 들어서면 오름은 더욱 돋보인다. 수직에 가까운 사면과 등성이 양쪽으로 뻗어내린 굴부리, 수백 종류의 식물들이 이 오름의 가치를 웅변한다. 탐사위원들은 이곳에서 오름음악회가 열리는 장면을 꿈꾸고 있었다.

## △거친오름

송당목장 입구 맞은편 농로를 따라 2km쯤 가면 거친오름의 기슭에 이른다. 오름의 모양새가 거칠게 보인다 하여, 예전에는 제주목과 정의현을 왕래할 때 이 오름 기슭을 거쳐간다 하여 이 오름의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나 그 연유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거친오름은 바로 코앞에 있는 체오름과 마주하고 있다. 북쪽 기슭에는 못이 하나 있다. '말순이 못'이라 불리우는 곳이다. 옛날 제주목과 정의현을 왕래할 때 이 못에 이르면 말에 물을 먹이고 쉬게 했다는 못으로 전해진다. 탐사위원 고정군 박사는 이 못을 찾아 수생식물을 조사했었던 기억을 들려주었다.

이 못을 지나 능선 가시덤불을 헤치며 10분쯤 오르면 정상에 이른다. 거친오름의 압권은 이곳에서 광활한 목장지대와 줄지어 서 있는 오름군집을 조망할 수 있는 점이다. 북쪽에 마주하고 있는 체오름에서부터 안돌, 밧돌, 거스새미, 민오름, 비치미오름이 횡렬로 포진해 있다.

이 오름은 종잡을 수가 없다. 오름이 하나 같기도 하고 전혀 별개의 오름이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두개의 봉우리 사이로 골짜기가 깊게 패여져 있어 오름이 갈라져 있는 형태다. 때문에 이 오름의 어원이 더욱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분화구도 전혀 별개의 것처럼 느껴진다.

[전문가 리포트]체오름 화구, 난·온대수종 공존

◇고정군 탐사위원( 식물생태생리분야/한라산연구소·이학박사)

체오름은 말굽형 화구일대에 온대(溫帶) 및 난대수종이 혼효된 식생구조를 갖고 있다.

난대수종인 상록활엽수로는 구실잣밤나무, 녹나무, 붓순나무, 참식나무 등의 교목성 수종을 비롯하여 관목성 수종인 식나무,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식나무는 화구 전체에 분포하면서 관목층에서 우점하고 있으며, 화구 서측에는 사스레피나무 군락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온대성 수종으로는 자귀나무, 때죽나무, 예덕나무, 굴피나무, 떡갈나무 등이 비교적 높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다. 초본류는 새우란, 소엽맥문동, 산달래 등 비교적 다양한 식물상을 갖고 있다. 그리고 화구의 입지조건을 이용한 조경수용 동백나무의 식재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화구 주변에는 후박나무, 굴거리나무 등의 난대수종뿐만 아니라 철쭉, 나한송, 개나리 등 다양한 수종이 조경수용으로 식재되어 있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발고도에 따라 난대, 온대, 한대(寒帶)성 식물이 수직분포하고 있다. 이중 난대림은 아열대림이라고도 하며 1월 평균기온이 0°C이상이고 연평균기온이 13~21°C 정도인 지역으로 상록활엽수림대가 주로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난대림이 제주도과 남해안, 울릉도에 일부 분포하며 동백나무, 사철나무, 후박나무, 녹나무 등 상록활엽수가 대부분이다.

제주도내 난대상록활엽수림은 구실잣밤나무,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군락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군락은 주로 해안 및 저지대의 계곡과 곳자왈지대 등에 주로 분포하는데 다른 산림식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제주도를 대표할만한 식물자원 중 하나이다.

더욱이 체오름과 같은 오름의 식생은 희소성, 자연성, 종 및 식생구조의 다양성, 입지의 다양성 등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저지대에 분포하는 이들 오름은 중산간 이하 지역의 원식생(原植生)을 파악하는 학술적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관찰 및 학습 등의 활용을 위한 이차적인 자원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 화구 북쪽 방향 '용암하도' 형성

#### ◇정차연 탐사위원( 지질분야/농업기반공사·이학박사)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해방 이후 제주도 지질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던 초기에는 현무암질 용암의 대부분이 한라산의 중심에서 반복적으로 분출하여 사방으로 흘러내려 분포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주도를 형성하고 있는 현무암 중에서 많은 부분이 분화구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분출되어 흘러나온 것으로 보편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체오름은 오름 화구로부터 분출된 다량의 용암을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오름이다. 오름은 모양과 형태 및 구성지질로부터 그 형성과정과 화산활동상을 유추해볼 수 있다.

체오름의 경우 화산활동 초기에는 마그마 내에 모인 많은 양의 가스함량에 의해 비교적 폭발적인 분출이 발생하였을 것이며, 분출된 화산암편(송이)과 화산탄 등이 화구 주변에 떨어져 다량위오름과 유사한 형태의 사면경사가 급한 원추형 모양의 분석구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한편, 화산활동 초기에 원추형의 분석구를 형성시킨 현무암질 마그마는 그 자체의 가스성분들이 우선적으로 화구 밖으로 많이 빠져나감에 따라 점차 용암을 분출하는 화산활동으로 변하게 된다. 흘러나온 용암은 화구를 채워 녹은 암석들로 가득한 호수를 한동안 유지하였을 것이며, 이후 용암의 양이 많아지면서 화산체의 가장 약했던 부분인 북동쪽 사면을 무너뜨리면서 용암이 체오름 밖으로 흘러 나갔을 것이다.

체오름의 중심화구로부터 북쪽 해안방향으로 좁고 긴 하도 지형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빗물에 의해 형성된 하천 계곡이 아니라 체오름으로부터 흘러나간 용암이 형성시킨 용암 하도(lava channel)이다.

특별취재팀/ 한승철부장(기획특집부)강시영·이윤형차장( ) 표성준(편집부)·강경민(사진부)기자

후원 : 한국언론재단

[알림]이번주 오름탐사는 1월 31일 동부관광도로변에 있는 부대·부소오름에서 실시됩니다. 집결지는 오전 9시 본사 휴게실.

[사진설명]체오름의 굽부리와 경사면. 굽부리에는 식나무 등 난·온대식물이 공존한다. 사진 아래는 굽부리 전경으로 마치 괴물이 아가리를 벌린 형상이다./사진=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